

선지의 법칙, 왜 필요한가? 선지의 일정한 패턴을 통해 정답의 확률을 알고 문제 풀이의 감각을 익힐 수 있다. 5개의 선지 중 임의로 선택한 선지의 산술적인 정답 확률은 20%이지만 그 이상의 유의미한 확률이 되는 경우가 있다.

1 대립 선지의 법칙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선지간에 전체 혹은 그 일부라도 서로 반대(대립, 모순, 부정)의 맥락을 이루면, 그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답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

- > 1 대 1 대립 (두 개의 선지 중 하나: 70% 이상)
- > 1 대 2 대립 (1의 비율 선지: 80% 이상)
- > 1 대 3 대립 (1의 비율 선지: 90% 이상)

▶ 대립의 양상은 국어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평가 요소이다. 이에 익숙한 출제자는 문제 제작 시,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반대 맥락의 오답을 만들기도 한다. 이를 토대로 〈대립 선지의 법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 풀이에 역이용하는 것이다. (주의: '부정형 발문'에서만 고려할 것)

예시 1 2019 수능 비문학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긍정)
-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 (부정)
- ③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 위 문제는 가능세계의 존재 여부로 선지 ①, ②가 1 대 1 대립을 이룬다. 그래서 지문과는 상관없이 선지 ①, ② 중에 정답이 있을 확률은 70% 이상이다.

예시 2 2016 수능 비문학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①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 → (긍정적)
- ②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 (부정적)
- ③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한다.
- ④ 흠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 ⑤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 〈논리 문제〉 해결에 관해 (①: 긍정적 ↔ ②: 부정적)으로 선지가 1 대 1 대립을 이룬다. 그래서 지문과 상관없이 선지 ①, ② 중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예시 3 2016 수능 비문학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본 실험'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① 역방향 전압을 100V로 바꾼다면 증배 계수는 40보다 작아지겠군. → (부정)
- ② 역방향 전압을 120V로 바꾼다면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유리하겠군.
- ③ 작동 온도를 20℃로 바꾼다면 단위 시간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겠군. → (긍정)
- ④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를 100m로 바꾼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nA보다 작아지겠군. → (부정)
- ⑤ 동일한 세기를 가지는 900nm 파장의 빛이 입사된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nA보다 작아지겠군. → (부정)

→ 선지의 일부를 수량 혹은 크기의 긍정 / 부정으로 분류해 보면, 선지 (③ ↔ ①, ④, ⑤) 1 대 3 대립을 이룬다. 그래서 지문과 상관없이 1의 비율인 선지 ③이 정답이 될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2. 공통 선지의 법칙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형 발문** 문제에
서, 선지 간에 **최대 공통점(답은 쏠)**의 한 쌍이 존재하
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는 매우 주관적인 언어(국
어) 시험에만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 이런 유형에서 출
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답은) 매력 오답
을 만들어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를 토대로 〈공통
선지의 법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 풀이에 역이용하
는 것이다. (주의: '최선 긍정형 발문'에서만 고려할 것)

예시 1 2019 수능 비문학

윗글에 나타난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정답 ④)

- ①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 ②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
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
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
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 ④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
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 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
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
를 찾은 것이었다.

➔ 위 문제는 선지 ③, ④가 **〈어떤 인물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
상학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공통적이다. 그래서 지문과 상관없
이 선지 ③, ④ 중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예시 2 2017 수능 비문학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
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좌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
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좌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좌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
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
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 선지 ④, ⑤는 핵심어(좌인, 명제)가 공통된다. **그래서 지문에 상
관없이 선지 ④, ⑤ 중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3. 비교 선지의 법칙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두 대상
을 비교하는 선지가 나오면 그것이 정답일 확률은 상당
히 높다.

▶ 2배, 3배 등 수치가 나오거나 '~에 비해 ~하다'의 형태
라면 확률이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출제자는 지문의 내
용을 바탕으로 숫자 등을 사용해 틀린 선지를 만드는 일
이, 다른 오류가 있는 선지를 만드는 것보다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주의: '부정형 발문'에서만 고려할 것)

예시 1 2017 수능 비문학

윗글로 볼 때, 반추위 미생물에서 배출되는 <숙신산>과 <젖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①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 동물의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
당의 양도 늘어난다.
- ②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
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 ③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
이 배출된다. → (산성 vs 중성)
- ④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 ⑤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
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 선지 ③은 '~에 비해 ~하다'의 형태로 **'산성'과 '중성' 두 대상
을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선지 ③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예시 2 2016 수능 비문학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① 플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② 플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을 없다고 본다.
-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 (암묵지 vs 명시지)
-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플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 선지 ③은 '~에 비해 ~하다'의 형태로 '암묵지'와 '명시지' 두 개념을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지문 및 문제와 상관없이 선지 ③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4 보기 - 선지의 법칙

한 시험(전 영역)에서 <보기>가 제시된 문제 중 1~2개는 지문을 보지 않고도 보기-선지 대응성만으로 정답이 된다.

- > 긍정 발문형: <보기>의 핵심과 가장 관련성 있는 선지가 정답
- > 부정 발문형: <보기>의 핵심과 가장 동떨어진 선지가 정답

예시 1 2018 9월 평가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④)

<보기>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개 존재한다.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네 번에 걸쳐 처리한다.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릿수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 비트(bit):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 ①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 ②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6배 빠르다.
- ③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 ④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 ⑤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여섯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

→ 보기-선지의 대응성만으로 정답이 될 확률은 매우 높다. 또한 '긍정 발문형'이므로 <보기>의 핵심과 가장 관련성 있는 선지 ④가 정답이다.

<보기>: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개 존재한다.
 선지 ④: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정답)

예시 2 2009 수능 비문학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시'와 'B시'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보기>

- A시는 제조업 퇴조에 따른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의 산업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A시 시장은 사업 추진체를 구성하고, 이해 당사자 설득에 힘써 왔다. 공장을 미술관으로 개조하고 보행자 전용의 아름다운 현수교를 세워 관광객을 유치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있다.
- B시는 창의적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많다. 대기업 부설 연구 기관이 많아 자본도 많이 투입된다. 그러나 연구 기관들은 지역 산업체와의 교류가 부족해 경제적 부(富)가 지역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된 연구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 ① A시는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을 중시하고 있군.
- ② A시는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창조 환경을 마련하고 있군.
- ③ B시는 창조 환경의 요소 중 개인의 자질이 우수하군.
- ④ B시는 창조 계층과 산업 환경 간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군.
- ⑤ A시와 B시 모두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창조 도시에 접근하고 있군.

→ 보기-선지의 대응성만으로 정답이 될 확률은 매우 높다. 또한 '부정 발문형'이므로 <보기>의 핵심과 가장 동떨어진 선지 ④가 정답이다.

〈보기〉: 이 연구 기관(창의적 연구를 하는 기관)들은 지역 산업체와의 교류가 부족해 경제적 부(富)가 지역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

선지 ④: 창조 계층과 산업 환경 간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군. (☆정답)

5.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문제의 지문 혹은 제시문이 A, B 등의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고 선지에서는 그 항목을 1개 혹은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다. 이때 〈항목을 1개만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보다 〈항목을 2개 이상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선지를 꼭 ①에서 ⑤의 순서대로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답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능 국어의 생명인 문제 풀이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시 1 2018 수능 비문학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 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선지 ②~④가 각각 A 혹은 B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이는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여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①, 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본다면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찾을 수 있다.**

6. 선지 오류의 법칙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선지 자체가, 국어 지식 혹은 일반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 오류가 확실히 있거나,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때가 있다. 이런 자체 오류의 선지는 부정형 발문에서 지문을 보지 않고도 100% 정답이 된다.

예시 1 2012 수능 비문학

〈보기〉에서 ㉠~㉢의 합성에 적용된 원리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발 바로 아래에서 나는 마루 삐걱거리는 소리〉는 같은 소리가 두 귀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들리도록 했겠군. (☆정답)

➔ **상식적으로** 각각의 귀에서 발 바로 아래까지의 거리는 거의 동일한데,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시간 차이를 두고 **들릴 수가 없다.**

TIP 1 선지의 법칙 수능 9개년 비문학 적용

	대립 선지	공통 선지	비교 선지	보기 선지	1항목 후순위	선지 오류
2019	○○	○				
2018		○○			○	
2017		○○	○		○	
2016	○○ ○○	○○ ○	○○ ○	○		
2015	○○ ○	○○ ○	○○		○	
2014	○○ ○	○	○○	○		
2013	○○ ○		○		○	
2012		○	○○	○		○
2011	○			○		

TIP 2 선지의 법칙 활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실전에서 지문 분석하기도 바쁜데 선지의 법칙을 따질 여유는 당연히 없다. 하지만 선지의 법칙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전혀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 풀이 시간을 1초라도 줄이고 정답을 찾을 확률을 1%라도 높이려는 동기가 있다면 충분히 살펴볼 만하다. 이 법칙들은 문제 풀이의 감각을 더해 줄 것이다. 다만 이 법칙들은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잘 안 풀려 당황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상약' 같은 팁이므로 체화해서 실전에서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이 교재를 통해 가볍게 보는 정도로 그치고, 실전에서 이것들이 불현듯 생각난다면 그때 참고하자. 물론 시간이 없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선지의 법칙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